

“100년 향한 위대한 도전”… 미래비전 반영 콘셉트카 공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

정의선 “80년 동안 많은 굴곡 거쳐
英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 닮아”

행사서 ‘비전 메타투리스모’ 공개
디자인 철학, 세가지 주행모드 담아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 10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 회장은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송호성 기아 사장, 임직원 및 외빈 400여 명이 참석해 기아의 지난 80년 여정을 기념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1944년 12월 11일 자전거를 생산하는 ‘경성정공’으로 창립한 기아는 이날 1994년에 이어 30여 년 만에 공식 사사(社史) ‘기아 80년’을 발간하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브랜드 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 회장은 “기아는 80년동안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동료애를 보여줬다”며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이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불굴의 의지 등과 닮았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공개한 ‘비전 메타투리스모’의 외장 모습.

다”고 말했다.

기아가 이날 발간한 사사에는 1960년 첫 부도, 1980년 정부의 강제 산업 통폐합으로 인한 승용차 생산 중단, 1997년 법정관리행 등 아픈 과거들도 담겼다. 사사를 집필한 이정규 고문은 “(정 회장이)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만이 아니라 시련과 실패의 뼈아픈 역사도 애누리 없이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행사에서 미래 비전을 반

영한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도 처음 공개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기아가 추구하는 ‘이동의 자유’와 ‘영감의 공간’이라는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한 결과물로,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차량은 1960년대 기아의 자동차 철학이었던 장거리 여행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한 공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등을 집약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픈핏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유려한 곡선과 기하학적 실루엣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전면 윈드실드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AR HUD(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다. 운전자는 별도의 고글이나 장비 없이 차량에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실제 도로 위에 펼쳐지는 입체적인 가상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다.

주행 모드는 ‘스피드스터·드리머·게이머’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 모드에 따라 실내 조명과 사운드, 가상 레이싱 환경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탑승자에게 단순한 이동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는 운전의 즐거움과 휴식,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한 공간에서 모두 충족시켰다는 기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모빌리티와 사람 중심의 공간을 결합해 기아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기술적 진보를 넘어 감각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유4사, 정제마진 급등에 회복세… 환율·유가·공급 변수 유의해야

러시아 수출 감소, 난방수요 증가 등
중간유 중심 강세… 연중 최고권
정유4사, 근본적 체질변화는 불가피

상반기 조 단위 적자에 빠졌던 국내 정유 4사가 러시아의 정유 수출 차질과 겨울철 중간유 수요 급증, 유럽·미국 정유소 폐쇄 등으로 정제마진이 급등하면서 하반기 들어 일제히 흑자 기조를 회복했다. 정제마진 강세가 4분기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환율·유가·공급 변수에 따라 이번 호황이 반짝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 1일 기준 배럴당 14.6달러

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손익분기점(4~5달러)의 세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올 초 배럴당 3.8달러 수준에서 출발한 뒤 중간유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며 연중 최고권에 올라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유럽·아시아 정제마진은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미국 중부 지역 정제마진도 시설 중단 후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1차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 등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 물량이 줄었고, 겨울 난방 시즌이 겹치며 경유·항공유 수요가 급증해 중간유 공급은 빠듯해졌다. 여기에 유럽·미국 정유

소 폐쇄와 정기 보수, 사고·정전 등으로 인한 비계획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정제능력이 눈에 띄게 위축된 것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 세계 정유 생산량은 7~8월 하루 8540만배럴 안팎에서 약 4백만배럴 줄어든 8150만배럴에 그쳤고, 미국 원유 처리량도 여름철 1750만배럴/일에서 이달 1560만배럴/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상반기 조 단위 적자를 냈던 국내 정유사들은 3분기 정제마진 회복에 힘입어 일제히 흑자로 돌아섰다. 에프엔가이드는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영업이익이 3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0% 늘고, 에스오일 영업

이익도 2880억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며 러시아산 원유가 재유입되면 원유 공급 여력이 커지면서 유가 하향 안정과 정제마진 강세가 겹쳐 정유사 수익성을 떠받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다만 환율·유가 변수는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연간 10억배럴 이상 원유를 전량 달러로 사들이는 국내 정유사들의 조달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환율이 10% 오를 경우 법인세 차감

전 손이익이 약 15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고가에 들어온 재고를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재고평가손실 위험도 커지고, 북반구 난방 시즌을 앞두고 정유소들이 연말까지 높은 마진을 노리고 가동률을 끌어올릴 경우 이후 공급 타이트 현상이 완화되면서 정제마진이 다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 교수는 “이동수단 연료로서 정유제품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유 4사도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SK하이닉스, ‘GSA 어워즈’ 2개부문 수상 (세계반도체연맹)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
우수 아태 반도체 기업상 수상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반도체 분야 주요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된 세계반도체연맹(GSA) 주최 ‘GSA 어워즈 2025’에서 ‘연 매출 10억 달러 초과 부문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과 ‘우수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기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GSA 어워즈는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반도체 산업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리더십, 재무 성과, 업계 존경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SK하이닉스는 최우수 재무관리 부문

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했고,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기업 부문에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불과 2년 전 예상치 못한 다ownturn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앞선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획기적인 HBM 설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 SK하이닉스의 기술리더십과 고객 중심 경영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평소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 경쟁력 확보

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기술 투자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회사는 2025년 들어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3분기 누적 매출 64조원, 영업이익 28조원으로, 2024년에 달성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인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2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27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 9000억원 늘어난 반면 차입금은 24조 1000억원에 그쳐, 약 4조원의 순환금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SK하이닉스 김주선 AI인프라 사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AI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LG 콤포트 키트’ 라인업 4종 확대

‘세탁기 이지세제킵’ 등 공개

LG전자가 누구나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LG 콤포트 키트’의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성별·나이·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자체 개발한 보조 액세서리 ‘LG 콤포트 키트’의 신규 라인업 4종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LG 콤포트 키트’의 제품 수는 18종으로 늘었다.

신제품은 장애 및 시니어 고객 외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고객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사용 경험을 고려해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세제 투입구와 투입량을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세탁기 이지세제킵’ ▲정수기 출수 위치에 정확하게 컵을 놓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정수기 이지트레이

(물받침)’ ▲도어를 편리하게 여닫도록 돕는 ‘식기세척기 이지핸들(도어)’ ▲전면부 터치 버튼의 위치와 기능을 촉각으로 알도록 안내해주는 ‘전자레인지 터치 가이드’ 등이다.

그중에서도 ‘정수기 이지트레이(물받침)’의 경우 초기 아이디어는 시각 장애 고객들이 정수기 출수구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획됐지만, 시선이 낮은 휠체어 이용 고객이나 키가 작은 영유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해 물을 흘리지 않도록 돕는 물받침 기능까지 더했다.

LG전자 HS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춘 ‘LG 콤포트 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가전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